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3월 15일	주일	사순 제4주일	기뻐하여라 주일의 기쁨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기(자선)
3월 16일	월	사순 제4주간	내가 가진 것을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겨놓기
3월 17일	화	사순 제4주간	미루어 두었던 '용서'를 실천하기
3월 18일	수	사순 제4주간	고요한 성체조배 시간 갖기(또는 마음으로 방문하기)
3월 19일	목	성 요셉 대축일	성 요셉처럼 묵묵히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기
3월 20일	금	사순 제4주간	금욕 지키기,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 마음 묵상하기
3월 21일	토	사순 제4주간	말 한마디를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담아 하기

♣ 사순시기 판공성사 및 십자가의 길 안내

-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까지. **주일학교 판공성사: 3월 22일**
- 십자가의 길 : 20일, 27일 저녁 8시.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3월 15일(오늘)**

♣ 사순시기 '신앙의 신비어'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2026년 교무금 안내

- 올해 교무금을 아직 책정하지 못하신 신자분들께서는 부활 대축일(4월5일) 안으로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동체를 위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목요일 : 04월 02일, 저녁 8시 **전례 성가**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 03일, 저녁 8시 **입당 :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 04일, 저녁 8시 **봉헌 : 215 (영원하신 성부)**

♣ 회의 / 모임

- 청년 회의 : 3월 15일 : 미사 후, 오라토리오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59.10€ • 교무금 12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8일)	다음 주일(3월 22일)
1독서: 안희관 요셉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2독서: 구희선 스텔라
복 사: 변가인 헬레나 / 안태리 소화데레사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정아인 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2026년 3월 15일

(자) 사순 제4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나이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6,1-7.10-13L)

그 무렵 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6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10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12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8-14)
 형제 여러분, 8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0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11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12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14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요한 9,1.6-9.13-17.34-38)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
 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
 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이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길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군비 감축과,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3.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생계조차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시어, 위로와 용기를 주시
 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삶을 이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